

말씀의 권위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 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아,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비뺠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 오너라」 하시고는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곧 나왔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 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 17:14-21>

태초에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육신을 이루었읍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만물의 발전의 근원이 되셨읍니다. 말씀이 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육신이 된 말씀은 불완전한 사람의 언어요 글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이 스스로 나타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은 모든 이 세상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읍니다. 성령

은 진공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신이 된 말씀으로써 행하시고, 그 힘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힘을 나타내는 말씀을 상쇄시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악령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갈등·충돌·대립·허무는 이러한 악령의 말과 성령의 말씀과의 대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회안에서, 한 체제안에서 또 한 단체, 그리고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의 말씀과 악령의 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해를 말하고, 을 갈망해도, 이 한가지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갈라서 말한 바도 있으나, 이것은 결코 헬라 사상으로써 정신과 물질세계를 둘르 갈라놓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라 함은, 악령이 지배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지배하는 생활이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차 있으며 시기와 분쟁, 사기와 악한 생각,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과, 남을 중상하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 불손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2:28-31)

이러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란,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분열과 당파를 만들고, 남을 미워하며 중상모략으로 남을 해치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일컬어 비인간화라고 하며, 이러한 악령의 힘과 싸우는 일을 인간화라고 합니다. 악령의 통치하에서 인간을 빼내는 일을 해방이라고 하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화평, 신뢰를 갖고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이 공동체는 바로 인종·국적·언어 문화의 모든 것을 초월한 공동체인 것입

니다.

예수께서는 민중을 사랑하셨습니다. 민중을 사랑했다는 말은 결코, 민중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민중의 손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저들의 손에 의해서 관원의 손에 넘겨질 것도 뻔히 알았어도 그 민중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령의 힘에 굴복하거나, 악령의 잔재주에 넘어가기 쉬운 민중의 약함을 불쌍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는 목전의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서, 베다바이당하는 어리석음, 거짓 예언자들의 감언 이설에 넋을 잃어가는 무지한 민중들이 몹시도 측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들의 편에 섰다는 것은 결코 온정주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속박에서 민중을 해방시키겠다는 총정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선교는 한 마디로 인간의 마음과 사회안에서 악령을 내쫓는 (Casting Out Evil Spirit)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흔히 구조악이란 말을 많이 듣지만 악령은 구조 속에 있는가? 이 말은 악령의 지배는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개인이 구조와 조직을 형성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또 어떤 공동체가 아무런 공동체로서의 조직이나 유대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 살 수 있다면, 이 구조악이란 말이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화라는 말이 단순히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뜻에서 이해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현대의 악령은 조직 속에서 활동합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사건에서, 다국적 기업체의 스캔들에

서, 우리는 현대의 악령이 얼마나 다국적인 것이며, 우주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악령은 고도로 정밀화된 조직과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신구교 싸움,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종 차별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싸움속에서 우리는 악령의 현주소를 찾습니다. 또한 악령은 금력·권력·종교적 편견을 이용해서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전쟁의 와중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국적인 현주소를 가진 악령은 월남에서도 민족의 비극을 연출케 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여 억압과 부패로써 정부를 온통 쪽발로 만들어 놓고, 국토와 민족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만 살짝 국외로 도망간 티우와 그의 추종진들도 분명히 귀신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과 운명을 함께하는 애국 정치가들이었다면, 왜 국외로 도망을 쳤단 말입니까? 일신의 안전만을 위해, 권력에 집착하였다는 것이 이 한 가지 사실로써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악령은 구조 안에서 역사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힘으로써 남을 지배하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거짓으로써 진실을 가리우고, 달콤한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대마초처럼 신경을 마비시키고, 듣고도 이해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장님같이 처세하게 합니다.

악령은 비단 정치 경제구조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예언자들에게서도 악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보는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

는 여우 같으니라」(에스겔 13:1-4)

에스겔은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패를 보면서 여호와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예언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얼빠진 작전을 쓰는 예언자들, 두어웅큼의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언자들, 그리하여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한1서4:1-3)

귀신을 내쫓는 선교로 일생을 마친 예수의 인간화를 시인하는 예언자는 참 예언자요, 이를 부인하고, 장삿속으로 몇 줌의 보리와 떡에 매달려, 민중을 현혹시키는 대중 환각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선포하기보다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애쓰는 말은 거짓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자궁하는 자들은 참 예언자들의 대열에 들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어제의 말을 뒤엎고,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임기응변적인 기회주의자들도 참 예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거짓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필연 효과적으로 인간의 넋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 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예레미야 23: 29-32)

불 같은 말씀, 바윗돌을 부숴버리는 말씀, 거짓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말씀의 능력만이 악령의 거처를 들추어 낼 수 있습니다.

사회구원이냐 개인 구원이냐 하는 논쟁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은 조직 속에서, 개인의 마음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이룬 것이 개인이고, 개인을 떠난 조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개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데서, 개인구원이니, 사회구원이니 하는 구차스런 어휘의 장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 선언서, 성명서가 가지는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말씀의 권위와 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은 누구 한 사람의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반성과 자기 비판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자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증만케 하라」(빌립보 2:1-4)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지며 서로 도와주는 일, 남을 나보다 중히 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은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싸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5:8-11)

사월이 오면 기억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4월은 눈과 비가 토지를 적시어 싸이 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악령과의 싸움에서 홀린 고귀한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가 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악령을 내쫓는 싸움에서 성령의 역사가 승리하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언제나 겸손하게 사랑으로써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1977. 7. 기독교사상)